



##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내달 개막 2016시즌, 10월까지 총 8번의 혈전 예고

| 2016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일정 |             |        |               |
|---------------------------|-------------|--------|---------------|
| ROUND 1                   | 4.23~4.24   | 1000cc | 후진 스피드웨이 (가평) |
| ROUND 2                   | 6.3~6.5     | 1000cc | 후진 스피드웨이 (가평) |
| ROUND 3                   | 6.17~6.19   | 1000cc | 후진 스피드웨이 (가평) |
| ROUND 4                   | 7.8~7.10    | 1000cc | 후진 스피드웨이 (가평) |
| ROUND 5                   | 7.30        | 1000cc | 후진 스피드웨이 (가평) |
| ROUND 6                   | 8.19~8.21   | 1000cc | 후진 스피드웨이 (가평) |
| ROUND 7                   | 9.24~9.26   | 1000cc | 후진 스피드웨이 (가평) |
| ROUND 8                   | 10.22~10.23 | 1000cc | 후진 스피드웨이 (가평) |
| 챔피언십                      | 9.3~9.4     | 1000cc | 후진 스피드웨이 (가평) |

국내 최고 권위의 모터스포츠 챔피언십 대회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사진)가 2016시즌 경기 일정을 발표했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은 2016년 총 8번의 경기를 치른다. 경기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4월 개막전을 시작으로 10월까지 7개월 동안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 6개 서킷에서 혈전을 펼친다.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외레이스도 이어진다. 매년 새로운 해외 서킷에서의 경기를 준비했던 슈퍼레이스는 올해 중국 주하이 인터내셔널 서킷을 추가했다. 6월 주하이를 시작으로 3만 명 이상의 중국 모터스포츠 팬들이 모이는 상하이에서 경기를 치르고, 8월에는 일본 F1 그랑프리 역사의 담을 후지 스피드웨이에서 경기를 펼친다. 동아시아 3개국의 모터스포츠가 격돌하는 최대규모의 국제대회인 ‘한·중·일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은 7월에 개최된다. 또 한 여름밤의 축제인 나이트레이스 역시 7월 인제 스피드웨이에서 개최된다. 나이트레이스는 문화공연과 야간레이스의 결합을 통해 모터스포츠 팬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경기다. 시즌 첫 번째 경기는 4월23~24일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펼쳐진다. 리모텔링 이후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를 통해서 처음 선보이게 되는 용인 스피드웨이는 길이 4.346km에 16개의 코너와 국내 최초 교량구간으로 구성되었으며, 경주차의 한계를 끌어낼 수 있는 다이내믹한 서킷이다. 용인 스피드웨이에서는 4월 미디어테이를 시작으로 개막전과 9월24일~25일 7전도 열려 수도권 팬들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성열 기자

## 박동훈 부사장, 르노삼성 사장 승진



박동훈(사진) 르노삼성자동차 부사장이 4월1일부터 사장으로 승진한다.

르노삼성자동차는 4월1일에 현 프랑스차 프로보 대표 이사가 약 4년7개월여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한국을 떠나 르노그룹 신입 경영위원회 멤버로서 르노 차이나 오퍼레이션 총괄 부회장 및 동맹르노자동차 사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2011년 9월 대표이사로 부임한 프랑스차 프로보 사장은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영난에 처해 있던 르노삼성자동차 내에서 리바이벌 플랜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앞선 2013년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시키며 단기간에 경영회복을 이끌었으며, SM3 Z.E., QM3, SM5 TCE, SM7 LPLi 등 차별화된 제품 강화로 고객 만족과 내수 회복을 이끌었다.

프랑스차 프로보 사장 후임으로는 현 영업본부장인 박동훈 부사장이 맡게 된다. 이는 르노삼성자동차 최초의 한국인 CEO. 박 부사장은 폭스바겐 코리아 초대 사장을 역임한 뒤 2013년 9월 르노삼성 영업본부 부사장으로 영입됐다. 이후 특유의 비즈니스 감각과 빠른 판단력으로 소형 SUV인 QM3를 국내 시장에 론칭, 성공시키며 르노삼성의 도약을 주도했다. 또 박 부사장은 최근 출시되며 호평을 받고 있는 SM6의 국내 론칭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원성열 기자

## 한국지엠 노사, 내수판매 확대 위해 TF팀 발족

한국지엠 노사가 내수 판매 확대를 위해 테스크포스팀(TFT)을 발족하고 공동해법 찾기에 나섰다. 한국지엠은 2월 한 달간 1만1417대를 판매했다. 2003년 이후 동월 최대 내수판매 실적. TFT에서는 올해 두 자릿수 내수 시장 점유율 달성을 목표로 노동조합, 국내영업부, 노사부, 대외협력부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해 정기적으로 회의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고남권 지부장은 “노동조합의 선제안으로 판매 활성화를 위한 노사간 TFT가 구성됐다. 회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기대하며, 노동조합 역시 조합원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2016년형 QM3는 유로6기준을 충족하면서도 가격과 성능은 그대로 유지했다. 오토 스탭엔스타트 시스템도 기본 장착됐다. 센터 콘솔 디자인을 변경해 사이드 브레이크 조작 공간을 넓혔고, 등받이 각도 조작 레버를 신규 적용해 보다 쉽게 운전 자세를 조정할 수 있다.

사진제공 | 르노삼성자동차

# 연비·디자인·가격 3박자... ‘내 생애 첫 차’ 딱이야

## 르노삼성 QM3, 2030에 어필하는 이유

공인연비는 17.7km/l...체감연비 더 높아  
유니크한 디자인·2000만원 초반대 가격  
태블릿 내비게이션 ‘T2C’ 장착 등도 매력

생애 첫 차 구입을 앞둔 20~30세대들에게 르노삼성자동차의 QM3는 반드시 체크리스트에 들어야 하는 자동차다. 이유는 분명하다. 뛰어난 연비와 효율성, 가격 및 유지비 경쟁력, 젊은 개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유니크한 디자인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QM3의 경쟁력은 판매량으로도 입증된다. 2014년 르노의 소형 캡처를 QM3라는 이름으로 출시했는데 첫 물량 1000대가 7분 만에 완판되는 신화를 쓴 바 있다. 이른바 OEM 수입차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판매량은 2015년에도 꾸준히 상승했다. QM3는 2015년 2만4560대가 판매되며 2014년 대비(1만8191대) 35% 상승, 르노삼성자동차의 내수 판매를 견인했다.

### ●작업 타보면 더 경이적인 공인 연비

생애 첫 차를 구입하려는 20~30세대에게 자동차 유지비, 특히 유류비는 가장 신경중하게 따져봐야 하는 요소다. QM3의 공인 연비는

### 르노삼성 QM3 주요 제원

|      |              |
|------|--------------|
| 엔진   | 1.5dCi       |
| 배기량  | 1461cc       |
| 연료   | 디젤           |
| 연비   | 17.7km/l     |
| 구동방식 | 전륜구동         |
| 승차인원 | 5인승          |
| 변속기  | 자동(DCT 6단)   |
| 최대출력 | 90마력         |
| 최대토크 | 22.4kg·m     |
| 가격   | 2239만~2533만원 |



17.7km/l이다. 준중형 세단도 아닌 소형 SUV의 연비로는 믿기지 않을 만큼 뛰어나다. 준중형 가솔린차와 비교하면 기름값을 약 40% 정도, 한달에 6만 원 이상 아낄 수 있는 수치다. 프랑스 르노그룹의 디젤엔진 노하우가 축적된 1.5 dCi 엔진과 독일 게트라서의 듀얼 클러치 변속기의 조합을 통해 만들어진 17.7km/l의 연비는 실제 운행시 연료 게이지가 거의 줄어들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실 연비는 공인 연비보다 더욱 높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 ●젊은 감성 자극하는 유니크한 디자인

연비 이상으로 소비자들을 자극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의 디자인이다. QM3의 디자인은 프랑스 감성 그 자체다. 간결하고 부드러운 곡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다라인은 역동적이다. 프랑스에서 개발하고 스페인에서 생산되는 만큼 내외장 색상도 생동감 넘친다. 옐로우, 아이보리 같은 난해한 컬러도 깔끔한 차량 디자인과 절묘하게 매치돼 개성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다. 또한 별도 구매할 수 있는 데칼을 통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실용성도 뛰어나다. 운전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서랍식 대형 글로브 박스와 넉넉한 적재 공간이 가능한 슬라이딩 뒷좌석, 간단히 분리해 가정에서 세탁할 수 있는 탈착식 지퍼형 시트 커버와 같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적용되어 있다.

### ●태블릿 내비게이션 T2C 적용으로 스마트한 취향 저격

QM3가 젊은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태블릿 내비게이션 T2C가 장착되어 있다는 점이다. SK텔레콤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태블릿 내비게이션 T2C는 차량과 태블릿 PC가 연결되는 인포테인먼트 선택 옵션으로 ‘T맵’ 길안내는 물론이고 스트리밍 멜

론 서비스, 음악, 영화 플레이어, 아날로그 라디오 청취, 전화, 후방카메라 모니터, 실시간 날씨, 스티어링 휠 리모트 컨트롤 기능 등을 탈부착이 가능한 태블릿 PC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T2C는 QM3 센터페시아에 부착된 태블릿 어댑터에 태블릿을 넣기만 하면 바로 작동된다. 기존 맵핑 내비게이션의 번거로운 업그레이드와 거치형 내비게이션의 차량과 연동되지 않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으며 평상시에는 나만의 태블릿으로 즐길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 ●그립 컨트롤 기능 추가한 ‘QM3 RE 시그니처’도 인기

QM3의 높은 실용성에 매력을 느끼면서도 보다 고급화된 모델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출시된 최상위 트림 QM3 RE 시그니처(2570만원)도 인기다. QM3 RE 시그니처는 그립 컨트롤 기능을 새롭게 추가해 실용적 연비에 더해 주행의 즐거움을 향상시켰다. 그립 컨트롤은 다양한 노면환경(눈, 진흙, 모래 등)에서 최상의 그립을 발휘하는 시스템이다. 운전자는 센터 콘솔에 위치한 그립 컨트롤의 3가지 모드(로드, 소프트 그라운드, 익스퍼트)중 하나를 선택해 주행할 수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 롱바디 버전 ‘티볼리 에어’, 준중형 SUV 정상 노린다

쌍용자동차가 소형 SUV 시장을 석권한 티볼리에 이어 롱바디 버전인 티볼리 에어를 출시했다. 티볼리 에어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티볼리보다 차체 길이를 245mm 늘렸다는 점이다. 소형 SUV에서 투싼이나 스포티지와 같은 준중형 SUV로 차체 크기를 키웠다. 시장 경쟁이 가장 치열한 세그먼트이며, 이미 투싼이나 스포티지가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항하기 위한 티볼리 에어만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일단 가격 경쟁력을 꼽아볼 수 있다. 티볼리 에어는 1949만~2449만원의 가격을 책정했다. 투싼 1.7디젤(2297만~2503만원)이나 스포티지 1.7디젤(2253만~2499만원)과 비교하면 가격 경쟁력은 충분히 갖춘 셈이다.

### ●확실히 넓어졌다

티볼리 에어는 차체 길이가 커진 덕분에 총 720리터의 넓은 적재 공간을 확보했다. 시트의 활용성도 더 커졌다. 2열 시트는 최대 32.5도까지 리클라이닝이 가능하며, 2열 헤드룸이 여유로워져 장시간 이동 시



쌍용차에서 티볼리 롱바디 모델인 티볼리 에어를 출시해 준중형 SUV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사진제공 | 쌍용자동차

후석 승객의 안락함을 높였다. 또 다양한 형태의 짐을 실을 수 있도록 래치 타입 폴딩 레버를 적용해 손쉽게 2열 시트를 60:40으로 분할 폴딩시킬 수 있다. 또 전체 폴딩 시 1440리터의 적재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야외에서 다양한 전자기기의 활

용을 돕는 220V 인버터를 적용해 레저 활동시 편리하다. 실내 인테리어의 선택의 폭도 넓혔다. 직물시트, 지오닉 인조가죽시트 및 가죽시트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지오닉 패드 고급인조가죽 시트는 블랙 베이스에 차량 에어를 연상시키는 패턴을 레드컬

차체 245mm 늘고 적재공간 총 720L  
1949만~2449만원 차량 가격도 장점

러로 적용해 보다 스포티한 이미지를 낸다.

### ●실용 영역서 최대토크 발휘

티볼리 에어에 장착된 e-XDi160 디젤 엔진은 최대 출력 115ps, 최대 토크 30.6kg·m을 발휘한다. 특히 실제 주행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1500~2500rpm의 실용 가속 구간에서 최대토크를 발휘해 보다 경쾌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다. 변속기는 아이신사의 6단 자동변속기. 경쟁 모델 중 유일하게 4륜구동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온·오프로드 주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 스마트 4WD시스템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도로 상태 및 운전 조건에 따라 최적의 구동력을 배분하는 스마트 4WD시스템을 선택하면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조합돼 우수한 승차감과 주행 안정성을 느낄 수 있다. 안전성도 강화했다. 티볼리 에어는 차체의 71.1%에 고강력 강판을 사용, 충돌 시 차체 변형을 최소화함으로써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했다.

원성열 기자